

2024년 사순시기 말씀살기

- 로마서·코린토서 묵상
- 하루 10분, 성경 읽기

로마서

로마서는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총정리하여 로마 공동체에 알리고자 보낸 서간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1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12-16장은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전반부에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 죽음을 통한 구원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의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바오로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규범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바쳐야 하고 성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린토서

코린토 1서는 코린토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오로가 그에 대한 조언과 가르침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코린토 교회가 겪는 문제는 공동체 분열, 불륜, 소송, 결혼·이혼·재혼·독신, 우상에 바쳤던 고기, 성령의 은사, 육신의 부활, 모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파벌 조성의 무익함을 증명하며, 문란한 성도덕과 육체를 경시한 철학 풍조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주님의 만찬 전승'(11.23-26)과 '사랑의 찬가'(13장), '그리스도 부활 전승'(15.3c-5) 등 다른 서간에 나오지 않는 귀한 가르침을 담아 올바른 그리스도교 신앙 원칙들을 제시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하며, 확고한 믿음을 지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사랑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일깨움을 주면서 자신도 문제 많은 코린토 신자들을 끌어안으며 사랑한다고 축복합니다.

코린토 2서는 두 통의 편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린토 1서를 보내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코린토를 방문한 바오로는 반대자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돌아온 바오로는 두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들은 집필 순서가 반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물의 편지'(10-13장)를 보내게 되고, 그 후 코린토 교회가 잘못을 뉘우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화해의 편지'(1-9장)를 보냅니다. 이 편지들의 내용은 바오로가 반대자들에 대항하여 자신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가운데 사도직과 신자로서의 본분 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코린토 1서는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제기한 갖가지 물음에 사목적으로 응답하는

내용이라, 객관적 교리 서술에 가깝다면 코린토2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위협하는 적대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라, 주관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신앙 입문자들을 위한 말씀살기' 14쪽, 춘천교구 성경사목부

하루 10분, 성경 읽기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꾸준히 말씀과 함께 머무르며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물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2024년 사순시기 말씀살기'와 함께 은총의 사순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2024년 재의 수요일에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